



염지혜 작 '미래열병'



박상화 작 '무등판타지아-사유의 가상정원' <광주문화재단 제공>

알고리즘

2018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소사이어티

광주시·광주문화재단 28일~내달 7일 문화전당서 본 전시 7개국 61명 37개 작품...포럼·프리뷰 전시 등

첨단 기계와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아니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사회의 구조를 어떤 양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놓이게 될까.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에 대변되는 오늘의 사회는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알고리즘'이다. 사전적 정의의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일컫는다.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디어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 2관과 미디어 월(75m×16m)에서 2018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4주년을 기념하고 광주의 도시 브랜드를 다져줄 이번 페스티벌은 창의도시 미래 비전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 본 전시엔 7개국 8개 도시 61명 작가가 참여해 모두 37

점을 선보인다. 유원준 총괄디렉터는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회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가 바로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라며 "다양한 문제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 구조를 조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페스티벌 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2관에서 전시 주제와 연관된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첫 무대는 태싯그룹이 한국의 자음과 모음을 그리는 동시에 대화의 음악으로 변환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컴퓨터 키보드로 채팅을 하며 일상적 대화의 음악이 될 수 있다는 '훈민정음' 작품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Howhyoga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관객 앞에 선다.

본 전시 작품의 콘셉트는 1층은 '시스템', 2층은 '데이터', 3층은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가 가동되면 그로 인해 현상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전시장 1층에선 감시 시스템을 보여주는 모리스 베나윤의 'Watch Out'과 공공의 전기 시스템에 기생해 살아가는 로봇 생명체를 제작한 질베르트 에스파자의 'Parasitos Urbans', 광주 출신 작가이며 전일빌딩을 주제로 작업한 정정주의 '응시의 도시 전일빌딩', 시대상의 변천을 표현한 염지혜 작가의 '미래 열병-2018' 등이 있다.

전시장 2층을 올라가면 실시간 데이터를 변환해 실제 인물을 컴퓨터로 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수파손 수와아나나의 'Synthesising Obama'와 광주의 지진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날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AoT의 '그날의 펄림', 무등산을 데이터로 변환해 가상으로 보여주는 박상화의 '무등 판타지아' 등을 볼 수 있다.

전시장 3층에선 광주를 배경으로 게임을 제작한 최석영의 'City Game :

Gwangju', 구글 맵으로 가상적 여행을 그린 염정원의 '꿈의 여행'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본 전시의 특징은 사전에 예술리서치, 게임아트 워크숍, 큐레이토리얼 어시스턴트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데 있다. 예술리서치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아트X리서치 프로젝트 3개팀(AoT, HOWHYOU, 최석영)이 광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모습을 조명해 만든 작품이다.

또한 본 행사 전에 서울 미디어캔버스, 부산 영화의 전당, 광주 아시아전당 미디어 월에서 프리뷰 전시가 진행돼 영상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도 열려 향후 정책 방향도 가능할 수 있다. 29일 오전 10시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도미니클랑(프랑스 앙기렐레비 CD대대표),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등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알고리즘사회에서의 예술문제를 논의한다. 문의 062-670-7492.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먹빛과 채색의 아슬아슬한 경계

월전미술재단 김대원전...22일까지 서울 한벽원미술관

한국화가 지암(芝菴) 김대원(조선대 명예교수) 작가의 2018년 신작은 그 어느 때 작품보다 격렬하다. 붓터치가 거침없고 색감도 다채롭다. 추상의 요소가 가미된, 자유분방함과 역동적인 화면 구성은 한국화의 한 숨 죽은 채색과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느낌을 준다. 지난해 담백한 수묵화의 매력을 담아 전시회를 열었던 김 작가는 올핸 수묵의 감성의 바탕 위에 채색화의 매력을 담은 강렬한 작품을 함께 그려나갔다.

김 작가는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화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월전미술재단 초대작가로 선정되서다.

한국화의 대가 월전 장우성(1912-2005) 선생을 기리는 월전미술문화재단은 매년 한국화가 한명을 초청해 초대전을 개최중이다. 광주지역 작가로서 선정된 건 김 작가가 처음이다.

김 작가는 오는 22일까지 서울 월전미술재단 한벽원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30여점의 전시작은 모두 대작이다. 먹빛과 채색은 적절히 어우러지지 않으면서도 침범해 적절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김 작가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잘 조정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 '야성(野性)'은 초록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색의 변주와 검은 먹빛이 어우러져 강렬함을 전하고, 짙은 화면 속에 온갖 색들이 어우러진 '여인과 말'은 원초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반점과 여백 등 수묵화의 매력을 전해주는 작품도 있다. 화면 가운데를 비워내 한결 여유로움을 주는 '천지인', 여백과 먹의 농담, 포인트처럼 새겨진 엷은 푸른빛의 선이 어우러진 '그날' 등이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은 좀 더 활발하게 지고 자유로워졌다. 작업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어



'아스라이'

그곳에 도달하기 까지 늘 변화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작품을 하면서 늘 비워내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문의 02-732-37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주 청년작가들의 작품 세계

우제길미술관 내달 7일까지 '분지' 전...쉐마미술관 전시 소개

청주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토박이는 아니지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거쳐 청주만 도시를 접했고, 이후 청주에 머물며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들이다. 한 도시가 작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무등산 자락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12월 7일까지 '분지(盆地)'전을 연다. 청주 쉐마미술관이 기획한 전시를 소개하는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창작전시공간활성

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따뜻한 느낌의 뜨개질 작품 'Home sweet home'을 선보이는 이선희 작가는 청주의 '오래된 공간'에 머물렀고, 그곳에 남긴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림베지의 작가의 '잠상'은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만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낸 작품이다. 그밖에 한성우·김영문·이서연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4-6601. /김미은 기자 mekim@



이선희 작 'Home sweet home'

문화로 휴전선 넘어 베를린까지

'평화의 노래-길을 열어' 18일 광주 풍암호수공원

문화로 휴전선을 넘어 독일 베를린까지의 횡단길에 나서겠다는 '평화의 노래-길을 열어' 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이사장이 계양)과 광주시 서구가 함께 여는 이번 공연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바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용 무대 차량인 18t 트럭을 타고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전국 50개 도시를 돌며 시베리아 횡단을 향한 여정을 한다.

'우물안개구리' 라떼양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김원중의 달거리' 가수 김원중이 출연하고 밴드 프로젝트, 바다프로젝트가 무대에 함께 오른다. 화가 주홍은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동시 작가 윤미경과 작곡가 승지나는 평화 동요를 함께 부른다.

그림책 작가 소슬은 평화 동화책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을 낭독하고 시인 박관서가 관객과 함께 따뜻한 글을 읽는다. 문의 062-651-081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 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9.1(토)~11.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